

‘주인으로 살 것인가, 종으로 살 것인가?’
 임제 선사에게 던진 화두다. 스승 황벽 선사에게 “어떠한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세 번 찾아가 세 번 물었다가 30방만을 맞았던 임제. 이 같은 질문을 왜 했을까?
 8월9일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을 만나 <임제록> 선공부법을 들었다. 현재 혜거
 스님은 매주 수요일 금강선원에서 제자자들을 대상으로 <임제록>을 강의하고 있다.
 “우리를 모두는 부처와 다르지 않다. 부처도 불 줄 알고 우리들도 불 줄 안다.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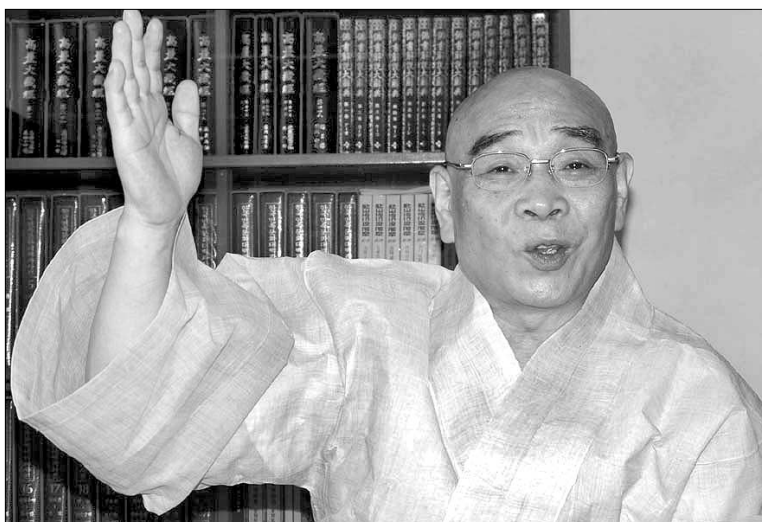
처도 들을 줄 알고 우리들도 들을 줄 안다. 이 사실을 알면, 달리 부처다 조사다 할
 것 없다. 순식간에 부처와 같게 되는 이치가 바로 이것이다.”
 어떻게 이 해답을 확인할 수 있을까? 혜거 스님은 “먼저 시비와 차별을 끊은 무위
 (無位)의 경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부처와 조사 어느 누구에도 의
 지하지 않는 ‘무의(無依)’의 단계가 돼, 결국 부처와 조사란 옷도 입지 않는 ‘무의
 (無衣)’ 진인의 경지에 이르고 설명했다. (02)445-8484

주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혜거 스님에게 듣는 '임제록' 禪공부법

'임제록' 모르면 할과 방 쓰지 말라
 <임제록> 공부는 선종(禪宗)을 이해하
 는 데 있습니다. '할'(囑:깨우쳐주기
 위해 '억'하고 큰 소리를 지름)과 '방'
 (棒:축비나 손으로 일격을 가해 깨우침을
 주는 행위)에 대한 연원을 <임제록>에서
 찾을 수 있지요. 사실 선종의 선종은 할
 과 방에 있습니다. 만약 그 선종의 연원
 을 알지 못하고 소리만 지르고 몽둥이로
 때린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일지
 가? <임제록>을 통해서 그 까닭을 분명
 히 알고 할과 방을 해야 그것이 살아있는
 할과 방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임제록>을

요? 임제 스님은 무위의 '위(爲)'를 '위
 (位)'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자리' 위치
 는 임금과 백성, 너와 나, 피차 없는 자
 리를 의미해요. 자리 즉 분별이 없는 그
 경지에 가야 진인이 된다는 거지요. '할
 일없는' 진인은 분별이 없애질 수 있는
 진인이란 거죠. 정말로 시비와 분별이 끊
 어진 참사람이 무위(無位)진인이라고 임
 제 스님은 강조했지요.
 때문에 <임제록>의 핵심 키워드는
 '무위진인(無位眞人)'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의도인(無依道人)'이란
 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임제 스님은 순차적으로 '자리 없는'



식 버리는 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
 니다. 무언가에 의지해 남의 것을 모방해
 내는 지식인, 시비와 분별을 조장하는 지
 식인의 병폐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가식의 옷을 벗고 자신을
 반조하는 거울이 되는 거지요.
 즉 임제 스님은 가식적인 지성인 모습
 (有爲), 차별하는 마음(有位), 차별성에서
 절대성에 의지하려는 마음(有依), 그 절
 대성에 옷을 입으려는 가식(有衣)의 실제
 를 여실히 알면, 일상생활 속에서 참사람
 (진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임제록>은 어떤 책?

<임제록(臨濟錄)>은 당나라 선승
 임제의현(臨濟義玄, ?-867)의 법어집.
 흥화존장(興化存獎)이 비고·검토
 하고, 의현의 제자 혜연(慧然)이 편집
 했다. 책머리에에는 북송 말기 진주장관
 (鎮州長官)이었던 마방(馬防)의 서문
 이 있고 상당(上堂:대중 공식법회 법
 문)·시중(示衆:문화의 선승이나 신도
 를 위한 긴 설법으로 선의 정수를 설
 함)·감변(勘辨:개말은 견처를 헤아리
 거나 나타내보이는 구절)·행록(行錄:
 임제 스님의 대우행과 과정과 입멸 등
 의 행장) 등 4부로 이루어져 있다. 행
 록 마지막에 전기(傳記)가 있다.

임제 스님의 '참사람' 되는 3단계

無位 → 無依 → 無衣

(부처와 중생은 본래하나) (본래부처임에 기대지 않음) (본래부처임도 벗어버림)

소홀히 하려면, 아예 할과 방도 쓰지 말
 아야 해요. 할과 방은 쓰고 <임제록>은
 등한시 한다면, 그야말로 본말이 바뀐 꼴
 이 됩니다.

특히 할과 방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중생은 자신의 육근(六根)에 변
 화가 오면, 몽둥이로 자책해야 합니다.
 방의 상징적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상대방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
 행을 위한 자책이자 철저한 자기 몸부림
 인 방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을 확실히 이해했을 때, '조사들의
 공부법이 이랬구나'를 배울 수 있는 거
 지요. 몽둥이는 '폼 잡는' 도구야 아닙니
 다. 그런 점에서 <임제록>은 구체적으로
 선수행의 길잡이가 됩니다.

진인, 즉 무위진인을 '의지할 곳 없는'
 무의(無依)도인으로 바꿨습니다. 한 단계
 의미가 더 깊어진 거죠. 무의는 부처와
 조사 어느 누구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처음에는 차별과 분별을 끊고,
 무의에서는 기대려는 마음을 걷어내려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의지할' 의(依)
 자가 '옷 의(衣)'자로 바뀌집니다. 여기
 서 무의(無衣)는 부처와 조사의 옷을 입
 지 않고, 부처와 조사의 영부새가 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경지가 최고의 진
 인이라는 거지요. 임제 스님의 핵심 사상
 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대로 '주인노릇' 하려면
 현대를 사는 제가불자들은 '무위진
 인' '무의도인' 등의 말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지금은 지성인의 시대입
 니다. 지성인은 어떠한 할까요? 가식
 적인 지성인이 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지성인운동으로 이 말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임제 스님의 '무위진인'
 '무의도인' 등의 가르침은 지성인이 가

부처와 조사의 옷을 벗어 던져라
 임제 스님이 강조한 선수행 공부법은
 무엇일까요? 불교와 중국 전통사상인
 '무위진인(無爲眞人)' 사상과 접목한
 '무위진인(無爲眞人)'에 있어, 무위(無
 爲)와 무위(無位)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임제록>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수처좌주입처제(隨處作主立處皆眞)
 '삼불살조(殺佛殺祖)'이지요. 제가불자
 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 가르침을 어떻
 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삼불살조는 무의도인(無依道人)
 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모든 부처
 와 조사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수처좌주입처제(隨處作
 主立處皆眞)는 '부처
 와 조사의 옷을 벗어버린다'는 무의진인
 (無衣眞人)의 경지에 이른 상태를 일컫
 는 말이지요.
 임제 스님은 '주인노릇하라'고 강조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주인의 눈으로 세
 상을 보면, 안 보이는 것이 없다는 의미
 에요. 때문에 주인의식이 바로 '현 생각'
 입니다. 정말 한순간에 주인의식을 생키
 는 것입니다.

정리·사진=김철우 기자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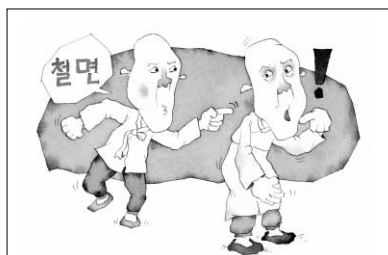
<30> 별명은 또 다른 선가의 문화

별명은 그 사람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
 나는 또 다른 이름이다. 절집도 사람 사는
 곳이라 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부처님의 별명은 무엇인가. '여래 응공 정
 변지 뉘 어찌구' 이렇게 나간다면 별로 재
 미없다. 당신의 별명은 '잔소리쟁이' 이
 다. 허구헌날 '는 하지 말라'고 똑같은
 소리를 지껄도록 반복해대니 발란타 비구
 가 호기있게(?) 물어주었다.

선가(禪家)도 예외는 아니다. 속가의 성
 씨가 별명으로 불린 경우도 많다. 남전 선
 사는 성씨가 왕씨인 까닭에 '왕노사'라고
 지칭하였고 도일 스님은 마씨인 까닭에
 '마조'라고 불렸다. 목주도명(睦州道明) 선
 사는 만년에 짚신을 삼아 팔아서 노모를 봉
 양하고, 그 나머지는 대문 앞에 걸어두고
 서 길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까닭에
 '진초혜(陳草鞋)'라
 고 불렸다. 성이 진
 씨이고 초혜는 짚신
 을 가리킨다.
 덕산 선사는 <금

선종사에서 가장 연구사력이 뛰어난
 사람은 조주 선사였다. 그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려운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언어로
 풀어낸 까닭에 그의 선종을 '구피선(口皮
 禪)'이라고 불렀다. 구피는 입술을 말한다.
 귀중지상 스님은 눈빛이 붉었다고 했다.
 그래서 '적안(赤眼)귀중'으로도 불린다.
 그 이유는 늘 약수로 눈을 씻었기 때문이
 라고 했다. 철분이 많은 약수터 물가 주변
 은 붉다. 귀중 스님이 즐겨 드신 약수도 철
 분이 많았나? 그렇더라도 석연찮다.

맹수에 빚낸 별명도 있다. 호랑이와 사자
 가 대표적인 것이다. 장사경장 스님은 별
 명이 '대충(大蟲)'이다. 대충은 호랑이란
 뜻이다. 양산 선사와 법거량하면서 스승을
 걸어서 쓰러뜨렸다.
 이런 기계를 가진 탓
 에 양산이 불어준 이
 름이다.
 호주(湖州) 서여
 사(西余寺) 정단(淨
 端) 선사는 사자춤
 을 보다가 깨웠다.
 그리고 항주(杭州)



맨날 벽만 바라본 달마 대사는 '벽관 바라문' 엉덩이와 방석 붙어버린 효봉 '절구통수좌'

강경의 대가인자라 '주금강'이라 불렸
 다. 모두 깃털을 중시하는 중국적 유교가
 족주의 영향이다. 하긴 현재 우리나라도
 이름 좀 떨치는 유명 스님들에게는 종진회
 에 참석하라는 공문도 오고 분사 주지급이
 되면 죽보에도 올려준다고 들었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신체적 특징이나 습관이 별명이 된 경
 우도 있다. 달마 대사는 맨날 벽만 쳐다보고
 있으니 '벽관(壁觀) 바라문'이라고 불렸다.
 육조혜능은 '갈료(獠:남방의 오랑캐)
 라고 했다. 디딜방아를 짚을 때 몸무게가
 모자라 허리춤이 들을 매달고 있었다니
 그렇게 잘 생기신 것 같지도 않다.

명주(明州)왕의 계하덕공(啓震德宏) 선
 사는 인품이 강직하여 쓸데없는 말을 하거
 나 웃지 않는 탓에 '철면(鐵面)'이라는 별
 명을 붙여주었다. '철면피'라고 하면 다소
 상스러웠을 텐데 '철면'이라고 하니 같은
 말이라도 듣기에 조금 낫다. 아무리 별명
 이지만 이정도 배려는 필요하다.

웅화사(龍華寺) 제야(齊濟) 선사를 찾았
 다. 만나자마자 몸을 뒤집으며 사자춤 흉
 내를 내보였다. 제야 선사도 이를 보고 인
 가하였다. 사자춤을 통해 깨웠고 또 인가
 받은 인연으로 총림에서는 그를 '단사자
 (端獅子)'라 불렀다.

근대의 송광사 효봉 선사는 정진 때 폼
 짝을 하지 않는 탓에 별명이 '절구통수좌'
 였다. 언젠가 깊은 삼매로 피부가 짓들려
 저 엉덩이에서 방석이 떨어지지 않았던 적
 도 있었다. 현재 해인사 방장 법전 선사도
 좌복 위에서는 미동도 없는 것으로 제방에
 호칭이 나 있다.

마지막으로 요즘 입심 좋은 스님들을
 좋게 표현하여 '지대방 방장'이라 부른다.
 반대로 '개구(開口)방'이라고도 한다. 이
 는 '입만 열면 허물'이라는 선어록의 '개
 구즉각(開口卽覺)'을 패러디한 것이다.
 어쨌거나 모든 별명에는 그 사람의 특징
 만큼이나 품격과 사상 그리고 문화가 알게
 말이라도 듣기에 조금 낫다. 아무리 별명
 모르게 스며들기 마련이다.

원효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으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
 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
 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
 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
 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
 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박작, 조울증, 강박
 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
 중,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물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
 데 찾았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 전생회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됩니다.
-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재)대한불교진흥원 설립 30주년 기념 특집호

(재)대한불교진흥원(법원인 흥승회)이 불교의 대중화·현대화·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인나는 유익한 전자
불교와 문화
 www.buddhistculture.co.kr

2005년 7·8월호 주요 내용

- **축하 회호** - '지수음(示水詩)' 성수 스님
- **권두칼럼** | 선배와 집중의 시기, 대한불교진흥원이 나갈 방향
- **제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A에서 Z까지** | 불교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 **3 삼학(三學)** | 육바라밀(六波羅蜜) 중법 스님
- **지상중계** |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 송담 스님의 한자어 임제법문
 "이서든 알뜰하게 경진하여 영원한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보낸 정제헌날 편지** - 아름다운 회향
 대한 거사의 수행관 - 기업가보다 나은 구도자였던 사람
 내가 만난 대한 거사 - 한국불교 100년을 내다 본 거북
- **기획특집** | **세계 제가불교수행의 현주소 - 역사와 현황 및 수행법**
 인도의 제가수행 전통 / 영국 '서양불교교단의 친구들'
 미국 제가불교수행의 한 모델 / 일본 제가불교의 역사와 제가교단 현황
 한국 제가불교수행의 역사와 수행단계 현황
- **장로대담** | 활안의 선지식에 듣는 수행한단
 4. 산청 해동선원 조실 활산 성수(活山性壽) 스님
 "지금, 한국불교의 절실한 수행하루는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 **테마기획** | 절집 공양간 맛 풍경 4
 사산의 천년고찰 개심사의 영가 천도제 올린 날
서양불교계를 빛내는 불교인
 불교원리를 사업과 삶에 적용하는 기업인, 브라이언 게스트
- **추모특집** | **대원 장경호** 기사
 '대중불교의 빛이시여, 제가불자의 희망이어'
 대원 장경호 기사 연보